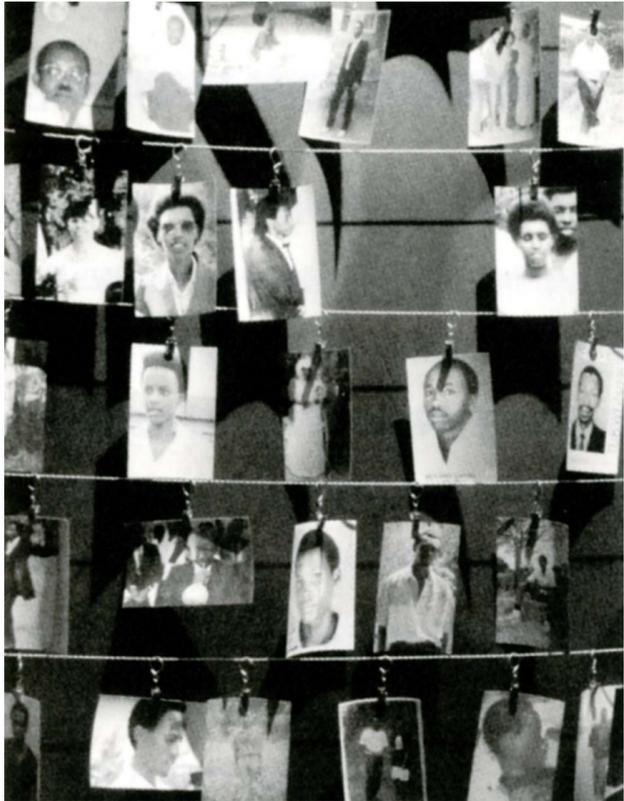


365일 에피소드로 펼쳐보는 역사 속 불행한 날들



르완다 내전 희생자들(80만명 추정)의 사진.

<추수밭 제공>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지독하게 인간적인 하루들

마이클 파퀴 지음·박인균 옮김

“오늘 하루가 아무리 엉망이었다고 역사 속 누군가는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었으리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겪는 불행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

여느 때는 삶이 지옥 같다고 느낀다. 삶은 무수히 많은 불행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행운의 퍼즐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 어느 편을 보든 그것은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몫이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웃으면서 절망하는 건 너는 지옥 안내사’라는 부제부터 눈길을 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편집자였던 마이클 파퀴가 펴낸 ‘지독하게 인간적인 하루들’은 365일 에피소드로 펼쳐보는 역사 속 불행한 날들을 조



스캔들·통속극·세계사적 사건 등 ‘웃기고도 슬픈’ 사례

하루하루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

삶은 불행의 조각이든 행운의 퍼즐이든 바라보는 자의 몫

명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퀴의 최신작은 하루하루를 불평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들의 불운과 후회도 역사에 기록된 치명적 어리석음과 파국적 불행에 비하면 한낱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스캔들과 통속극부터 세계사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책은 365일의 에피소드가 빠곡하게 담겨 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다. 70억의 인구라면 한 사람당 하나씩만 해도 모두 70억 개의 불행이 있었을 것이다. 20세기 한 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 수십억개가 넘는다.

책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각 달에는 모두 30개 또는 31개(2월은 28개)의 불행이 수록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웃기고도 슬픈’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나치 선전에 앞장섰던 요제프 괴벨스는 1928년 10월 26일 일기장에서 “내겐 친구가 없어”라며 투덜거렸다. 또한 “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도 듣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누구라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한다.

1994년 6월 10일 미 국무부 대변인 크리스틴 셸린 기자회견을 하면서 르완다에서 일어난 대규모 살육을 언급하는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그는 ‘집단학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 괴상한 관료주의적 표현을 동원했다.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표현에 ‘대량학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얼마나 모이면 대량 학살이 되는 건가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컬한 상황도 있다. 1434년 8월 15일 ‘고고한 어린이를 위한 예배당’을 기부한 이는 아동 학살범이었다. 백년전쟁 영웅 잔 다르크의 전우였던 질 드레는 전장 은퇴 이후 아동 성추행과 살인을 일삼았다. 그가 예배당을 짓고 봉헌을 하면서 성인 명부에 자신을 추대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옆 8월 16일(1962년)에는 비틀스의 드러머 피트 베스트가 해고된 이 야기가 나온다. 그는 전설적인 4인조 그룹으로부터 “네가 밴드에 남아 있는 걸 더는 원치 않아”라는 통보를 받는다.

이처럼 책에는 불행하고 불운한 연대기가 등장한다. 저자가 말한 ‘절묘하고 터무니없고 불안하고 우스꽝스러운’ 날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쑥 불쑥 튀어나온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불행을 피하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빌 클린턴이다. 백안관 인턴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저는 르윈스키라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까”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7개월 후 그는 “르윈스키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졌던 게 맞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터 대통령은 통역자의 실수로 황당한 경험을 했다. 1977년 12월 29일 폴란드 순방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통역은 일을 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카터가 “오늘 제가 미국을 떠날 때였습니다”라고 연설을 했는데 통역자는 “제가 미국을 버렸을 때였습니다”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꼬였다는 점이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갈망을 알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통역은 “저는 성적으로 폴란드 사람들을 원합니다”라고 옮겼다.

이처럼 책에는 역사 속 불운한 날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오늘 하루가 아무리 엉망이었다고 역사 속 어딘가의 누군가는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겪었다”며 불행에 빠진 이들을 위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새롭게 보는 베트남

이우식 지음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서 현지에서 ‘박항서 신드롬’이 불고 있다. 베트남 총리가 박항서 정권을 경제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상호 국가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의 금융 기관 경험을 토대로 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서울의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무안 출신 이우식 씨가 펴낸 ‘새롭게 보는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직접 인가를 받고 지점을 개설하면서 체득한 노하우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베트남이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됐는지 분석한다.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울였다. 책에는 농협은행 하노이지점 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노하우가 수록돼 있다.

저자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투자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추천사에서 “필자가 온몸으로 겪은 체험으로 엮은 책이 베트남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하움·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구정은 지음

바다를 덮은 플라스틱은 미드웨이 환초의 앨버트르스와 바다거북, 갈매기와 물고기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대가로 치른다. 캐나다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생활쓰레기는 필리핀으로 ‘수출’되어 갈등을 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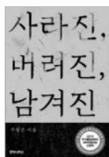
지구 곳곳의 버려진 존재들을 만나는 여행기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은 오랫동안 국제부 기자로 활동해 온 저자 구정은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저자의 시선은 영화롭고 평온한 곳보다는 파괴되어 간신히 남은 흔적들과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들에 오래 머문다.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유적에 서려 있던 압도감은 마군의 침공과 이슬람국가의 유적 파괴 앞에 빛을 잃고, 자신의 터전에서 버려 내지 못한 ‘난민’의 삶은 망망대해를 넘고 도그들 곳을 찾지 못해 거둬 무너진다. 2015년 9월 세 살 난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가 짧은 생을 마감한 터키의 해변이 더는 평범한 휴양지일 수 없듯이, 버려진 존재들을 만나는 여행은 익숙했거나 보이지 않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간다.

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버려지는 상품인 ‘인간’임을 강조한다. “결에 두고 쓰던 물건은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시간이 흘러 잊히는 것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거나 감추는 것도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폐기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책에 소개된 노예, 난민, 이주민, 미등록자,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버리고 지우고 폐기하는 존재이자, 버림받고 지워지고 폐기당하는 존재이기도 한, 우리 인간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후마니타스·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괴테와 스티브잡스의 대화

김성국 지음

인문영역을 통해 경영자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독일 문학 전공자 김성국 교수는 ‘괴테와 스티브잡스의 대화’에서 23편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며 다양한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속한 집단 사회에서 펼치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를 통해 개개 조직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하고 이를 인간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지은이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간 괴테가 21세기의 인물 스티브잡스와 어떻게 살리컨밸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상상에서 출발해 과거의 리더십 스타일이 21세기 소통의 시대에 어떻게 혁신하고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은이는 소통의 중요성과 소통 방법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다루는 인문학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는 독자들이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다시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괴테의 깨달음 ‘인간은 이 세상에서 노력할수록 방향을 하는 존재이지만, 그 방향의 끝에는 구원과 희망이 있다’는 구절을 통해 인간의 삶의 여정과 그 목적, 그리고 경영자로서 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독백에서 경영의 달레마와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결을 얻을 것이라 조언한다. 가난한 미국 청년 윌러 디즈니는 다락방에서 ‘미키 마우스’, ‘도날드 덕’과 같은 재미있는 만화를 그렸고, 그의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 지은이는 괴테가 살리컨 밸리에서 스티브잡스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의기투합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

<휘즈북스·1만6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짚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망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